2026년 7월 27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슈퍼 위크를 통한 반등 에너지 확보 국면

이번 주 코스피는 1) 7월 FOMC, 2) 미국 6월 PCE, 7월 기대인플레이션, 3) 미-이란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 4) MS,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실적, 5)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국내 주도주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주가 회복에 나설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300~7,400pt).

지난주 5거래일 중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4회(매수 2회, 매도 2회) 발동되는 등 정상 범주를 넘어선 변동성 장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발 수급 부작용 이외에도, 유가 강세, 금리 급등 등 전쟁 및 매크로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 다만, 밸류에이션, 기술적 관점에서 중기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전제는 훼손되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예정된 대내외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반등의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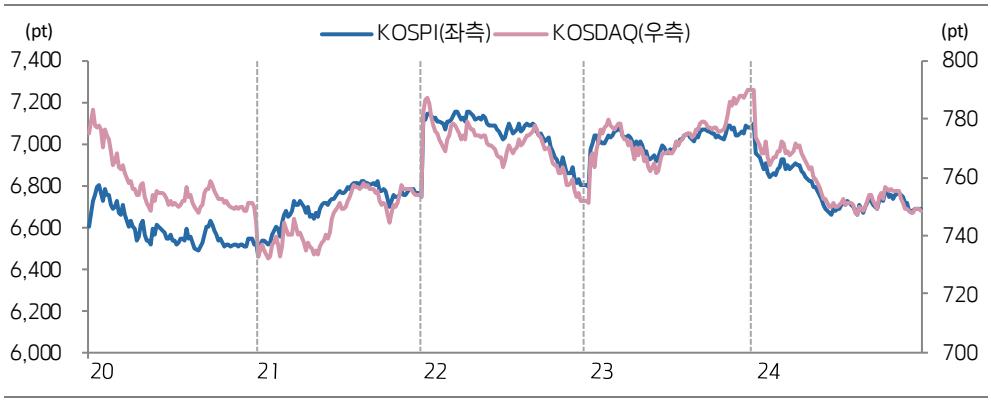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급등, 미국 기술주 급락이 투자심리를 재차 위축시키며 하락 마감 (KOSPI -1.91%, KOSDAQ -5.51%)

주 초반에는 연휴 기간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와 중국 AI 스타트업발 AI 투자 지속성 우려가 겹치며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해 6,500선까지 밀려났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됨. 코스닥도 5%대 하락하며 750선을 하회함. 이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완화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반등,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수급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됨. 주 중반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반도체·로봇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기관·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전강후약 흐름을 나타냄. 이후 구글의 AI 투자 확대 계획이 공개되면서 반도체주 투자심리가 다시 개선됐고, 외국인의 반도체 대형주 순매수가 지속되며 코스피가 7,000선을 재탈환하고 코스닥도 790선을 회복함. 그러나 주 후반에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와 국제유가 급등, 미국 기술주 조정이 겹치며 약세 마감.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시각 변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였음.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구글의 AI 투자 확대 발표는 외국인 자금을 반도체 대형주로 집중시키며 주중 반등을 이끌었으나, 미국 기술주 조정과 국제유가 급등,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주 후반 외국인·기관의 동반 이탈을 초래함.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 저가 매수에 나섰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주중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된 점은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줌.

업종별로 건설(+8.38%), 통신(+6.88%), 운송/창고(+5.01%), 전기/가스(+4.78%), 제약(+4.43%)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기기(-13.15%), 증권(-6.52%), 보험(-3.8%), 전기/전자(-2.89%), 금융(-2.7%)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2조 3,036억원)은 제조(+20,515억원), 전기/전자(+18,484억원), 유통(+1,613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2조 7,992억 원)은 유통(-714억원), 전기/가스(-205억원), 보험(-175억원), 기계/장비(-166억원)순으로 순매도.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7 월 27 일	월	미국	내구재주문	6 월	1.5%	-4.5%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7 월	-	0.0
		실적	아스트라제네카		-	-
		실적	두산, LG 이노텍, 한화오션		-	-
7 월 28 일	화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7 월	-	106.6
		미국	CB 소비자신뢰지수	7 월	92.3	91.2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7 월	-	4
		실적	코카콜라, 보잉		-	-
		실적	한미약품, 대우건설		-	-
7 월 29 일	수	실적	비자, HSBC		-	-
		실적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한화솔루션		-	-
7 월 30 일	목	EU	GDP 성장률 (YoY, 잠정치)	2 분기	-	0.5%
		미국	GDP 성장률 (QoQ, 잠정치)	2 분기	2.3%	2.1%
			개인소득 (MoM)	6 월	0.3%	0.7%
			개인소비지출 (MoM)	6 월	0.4%	0.7%
			PCE 물가지수 (YoY)	6 월	3.6%	4.1%
			PCE 물가지수 (MoM)	6 월	-0.1%	0.4%
			PCE 근원 물가지수 (YoY)	6 월	3.3%	3.4%
			PCE 근원 물가지수 (MoM)	6 월	0.1%	0.3%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마스터카드	7 월	-	-
		실적	삼성전기, 삼성 SDS, POSCO 홀딩스	7 월	-	-
		회의	미 FOMC (오전 3 시)		-	3.50-3.75%
		회의	BOE 기준금리 결정		-	3.75%
7 월 31 일	금	한국	무역수지 (1 일)	7 월	-	$36,088M
			산업생산 (YoY)	6 월	-	-0.9%
		중국	제조업 PMI	7 월	49.9	50.3
			서비스업 PMI	7 월	50.0	50.2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	7 월	54.4	49.5
			미시간대 1 년 기대 인플레이션(최종)	7 월	4.2%	4.6%
			미시간대 5 년 기대 인플레이션(최종)	7 월	3.3%	3.3%
		실적	애플, 아마존, 엑손모빌		-	-
		실적	현대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온시스템		-	-
		실적	에코프로비엠, 대덕전자, LG CNS		-	-
		회의	BOJ 기준금리 결정		-	1.00%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7월 FOMC, 2) 미국 6월 PCE, 7월 기대인플레이션, 3) 미-이란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 4) MS,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실적, 5)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국내 주도주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주가 회복에 나설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300~7,400pt).

24일(금) 미국 증시는 미-이란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등세 진정에도, 빅테크 업체들의 수익성 불안 확산 속 마이크론(-7.0%), 인텔(-7.9%) 등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인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0.5%, S&P500 +0.1%, 나스닥 -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3%).

지난주 5거래일 중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4회(매수 2회, 매도 2회) 발동되는 등 정상 범주를 넘어선 변동성 장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발 수급 부작용 이외에도, 유가 강세, 금리 급등 등 전쟁 및 매크로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

다만, 코스피 선행 PER이 6배(24일 기준 5.7배)를 하회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은 유효하며, 차트상 지난주 120일선 부근에서 하방 지지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밸류에이션, 기술적 관점에서 중기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전제는 훼손되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예정된 대내외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반등의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

매크로상으로는 6월 PCE, 7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대기하고 있으나, 6월 CPI, PPI를 통해 선제적으로 물가 향방을 확인했기에, 7월 FOMC의 중요성이 더 클 전망.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므로, 케빈 워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평가 변화를 비롯해 9월 금리 인상 신호의 등장 여부가 관전 포인트.

FedWatch상 12월 FOMC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기존 3.75%에서 4.25%로 50bp 인상될 확률이 39%로 높기 때문. 이는 시장이 연내 1~2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7월 FOMC 이후 매파적인 베팅 수요가 줄어드는지가 증시 회복 강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미-이란 휴전 파기 이후 90달러 안팎으로 올라간 WTI 향방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 이번 주에도 유가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면, 7월 FOMC가 완화적인 결과로 끝나더라도, 시장의 해석 여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 연준 긴축 리스크 강화 -> 시장금리 상승 -> 증시 할인율 부담 증가"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는 함. 그러나 중국 등 주변국 중재 지속, 25일 트럼프의 공습 중단 지시 등을 고려하면, 양국 간 긴장 완화 및 협상 복귀를 베이스 시나리오(TACO)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국내외 AI, 반도체 등 주도주 실적이 최대 이벤트. 미국에서는 MS, 아마존,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지난주 알파벳과 인텔 모두 "호실적 + CAPEX 상향"을 기록했음에도, 대규모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해당 주식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했던 상황. 기존에는 "CAPEX 상향 -> AI 수요 확인 -> 증시 호재"의 신호로 해석됐지만, 최근에는 "CAPEX 상향 -> 수익성 훼손 -> 증시 악재"로 바뀌고 있는 모습.

이는 주도주인 반도체 주가를 결정하는 무게중심이 고객사들의 수익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결국 이번 주 예정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등 본업 성장률 및 CAPEX 상향 여부를 넘어, 투자 확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금흐름, 영업이익률과 같은 지표 개선 여부를 주시할 필요.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력 업종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으며, 이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메인 이벤트. 우선 주말 중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5년 2,000억달러 MOU),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MS 등 빅테크(5년 7,500억달러 LOI)와 대규모 장기 공급 협력 소식은 AI 투자 확대가 실제 메모리 수요로 연결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상태.

여기에 2분기 실적을 통해 최근 주가 조정의 근원지였던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실적을 확인한 만큼, 파운드리 적자 축소, HBM 매출 비중 확대, LTA 체결 내역 등이 관전 포인트.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FnGuide 컨센서스 64조원)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 DRAM 및 NAND 수급 전망, LTA 등을 포함한 가이던스 변화가 중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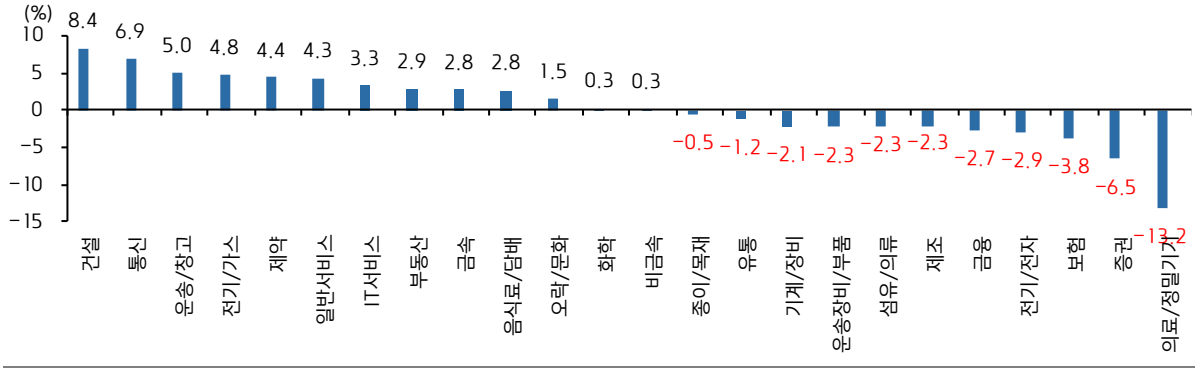
이 같은 국내외 주력 업종의 실적이 모두 주 중반에 몰려 있으며, 7월 FOMC와도 맞물려 있는 일정임. 주 중반으로 갈수록 이들 이벤트를 동시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가격, 밸류에이션상으로 하방 위험보다 상방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감안 시, 주도주 중심의 기존 포지션 유지 혹은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갈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690.62	-5.7	-1.9	-21.0	58.8
대형주	7,328.63	-6.0	-2.1	-22.2	67.4
중형주	3,917.42	-2.2	0.4	-4.3	5.2
소형주	2,260.60	-1.3	-0.1	-0.9	-10.2
코스피 200	1,055.58	-6.3	-2.3	-22.9	74.2
코스닥	748.22	-5.3	-5.5	-17.7	-19.2
대형주	1,812.90	-6.9	-7.4	-23.7	-19.5
중형주	773.42	-4.2	-4.3	-12.1	-14.0
소형주	2,184.64	-2.7	-2.4	-6.8	-15.1
코스닥 150	1,260.87	-6.4	-7.6	-23.4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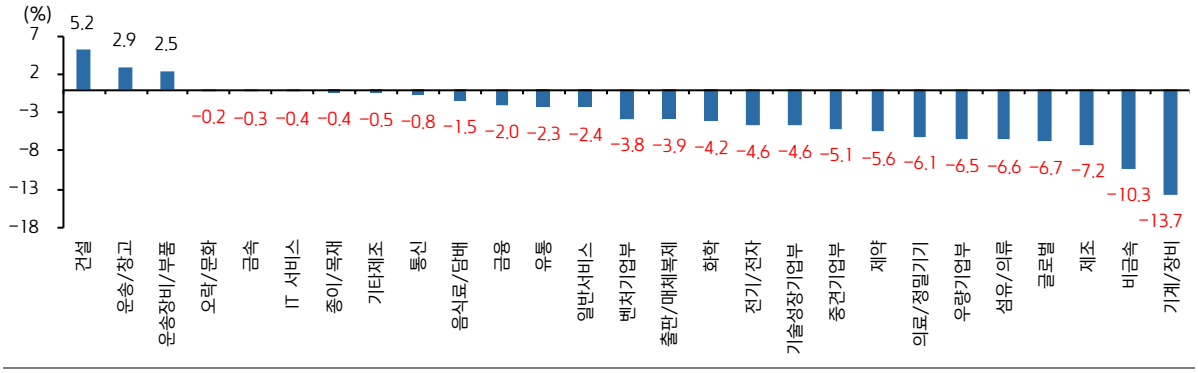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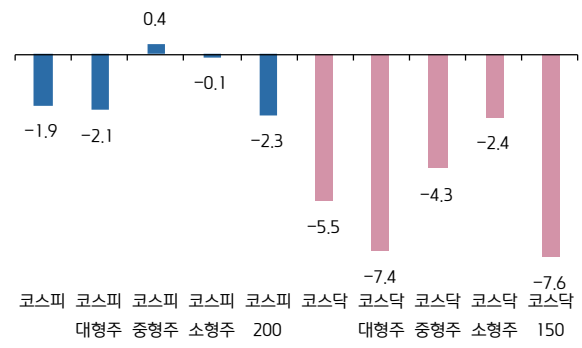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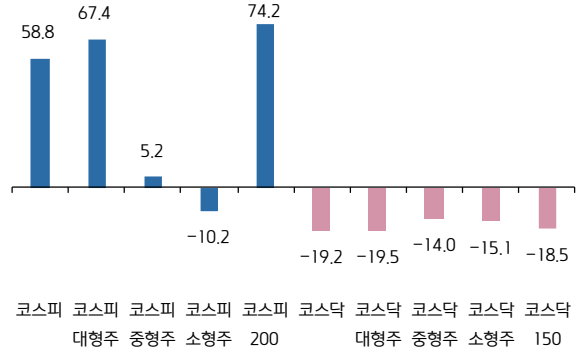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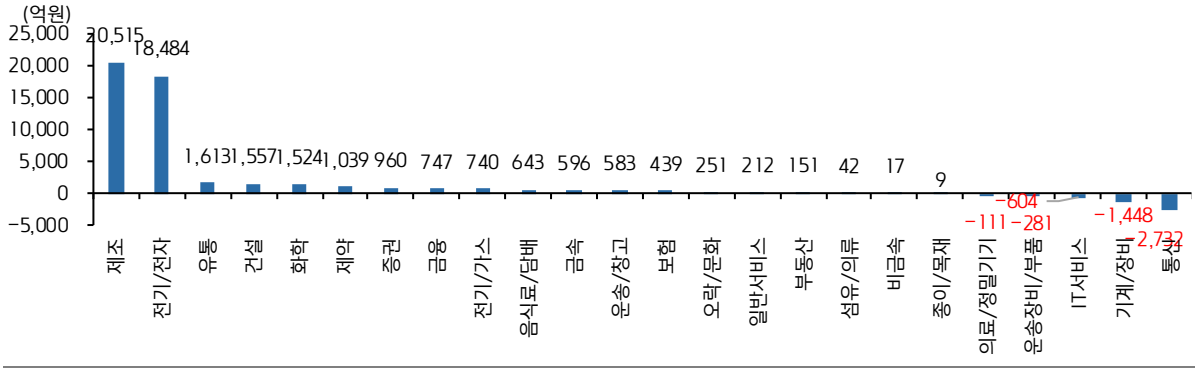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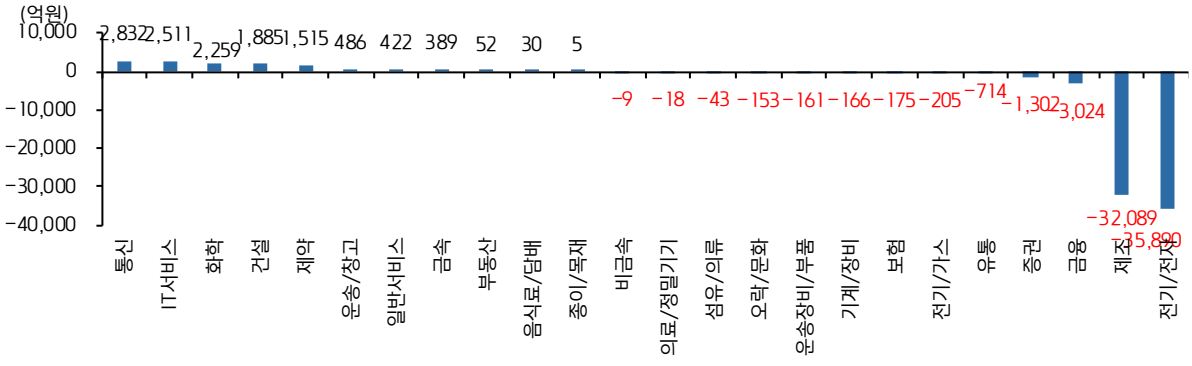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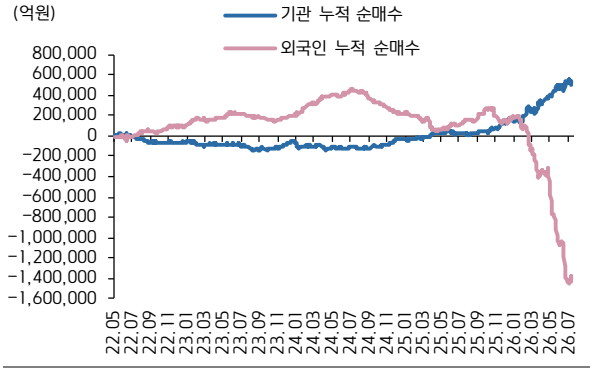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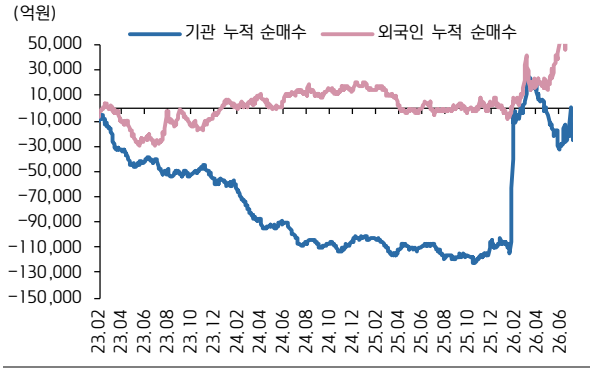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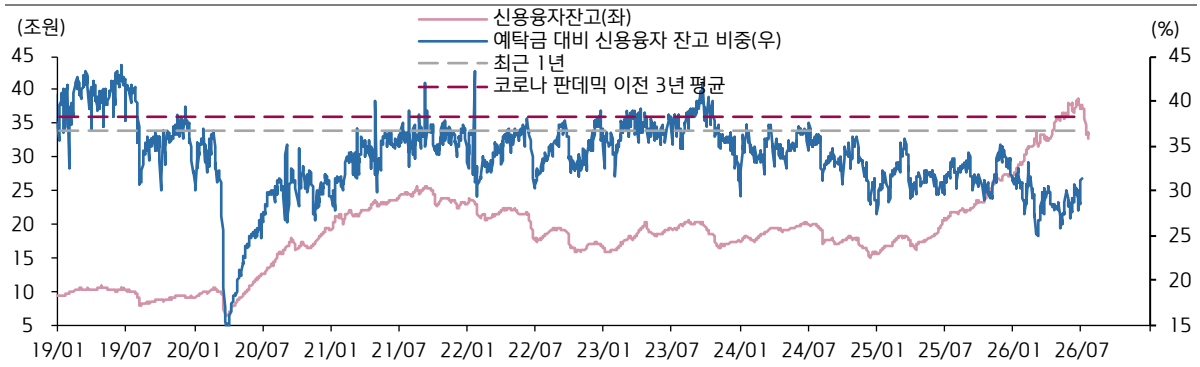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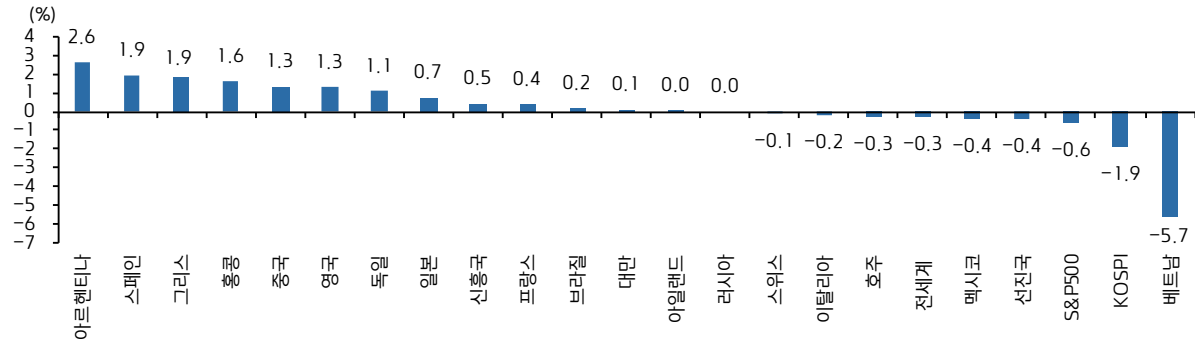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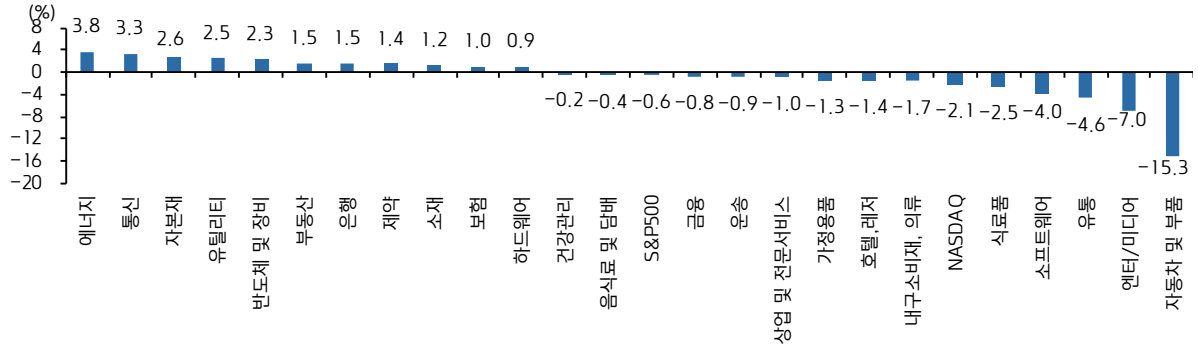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